

사기꾼은 외로운 사람을 노린다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201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은 외로운 마음을 노리는 전형적인 사기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와 친밀해진 다음 그 믿음과 사랑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가해자는 보통 자신을 '파병 군인', '해외 거주 한국계 전문직' 등으로 그럴듯하게 소개하며 다가선다. 그리고 충분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됐다 싶으면 작전을 개시한다. "업무차 그리스에 나와 있는데 지갑과 비행기 표를 도둑맞았다", "갑작스런 사고로 목돈이 필요하다" 등 온갖 거짓말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한다. 이때 사랑에 빠져 있던 외로운 피해자는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돈을 보내 주기 일쑤다. 돈을 받아낸 순간 로맨스 스캠범은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배 급증했다. 피해액은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배나 증가했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프랑스에서는

50대 여성 앤(Anne)이 무려 1년 반 동안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와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일이 있었다. 사기꾼들은 그 여성에게 "브래드 피트가 신장암에 걸렸다"며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브래드 피트 입원 사진'까지 보냈다. 결국 그녀는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고, 그제서야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다. "너무 외로워서 기별 대상이 필요했는데 한순간 눈이 멀었다"고 털어놓은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안겼다.

외로운 심리 상태일수록 사기범의 거짓 친밀감에 취약할 수 있다.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온라인 지인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설령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더라도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급박한 사정이라 해도 매신저로 돈부터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진정한 연인이나 친구라면 그런 식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할 리 없다. 또한 부모님 세대의 경우 외로움 때문에 수상한 연락에 더욱 쉽게 현혹될 수 있다. 가족 간에 암호 질문을 미리 정해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기보다 오프라인에서 취미 모임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과도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 지지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주변에 따뜻한 관심과 조인을 보내 주는 이들이 있다면 설령 수상한 유혹이 오더라도 피해자가 사기임을 깨닫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약점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빔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을 적절한 타깃으로 판단해 감정을 건드린다"고 분석한다.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라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알려 줄 보호망이 없다. 함께 걱정해 줄 가족도, 조언해 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상황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취약점이 된다.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정서적 빈곤을 키웠고, 이를 파고드는 사기 수법이 장광하고 있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잠시 북아메리카 잔치의 시간



김연세의
(정책사회부)

100년을 바라보는 FIFA 월드컵 역사에 대해 브라질을 빼놓고 논할 순 없다. 영원한 우승 후보로 불려 왔다. 그러나 이 최고의 수석어는 2010년대를 거치며 무색해졌다. 2006 독일 대회부터 2022 카타르 대회까지 단 한 번도 결승전 무대를 밟지 못했다.

'우승국은 개최국이 속한 대륙에서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만을 가리키는데 예외가 있었다. 유럽(1958 스웨덴 대회)에서 브라질이, 아메리카(2014 브라질 대회)에서 독일이 각각 우승컵을 챙겼다. 브라질이 2026 북미 대회에서 그 전통을 되살릴지 관심거리다.

네이마르는 13년 전 컨페데레이션컵 결

승에서 스페인(2010 월드컵 우승국) 상대 3-0 완승을 이끌었다. 그가 삼바축구·카나리아 군단 재건의 서곡을 울렸으나 작자 먼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쪽은 필러와 음바페, 메시였다.

그에 앞서 스페인은 2010 남아공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0-1로 패했다. 그 전까지 스위스 상대로는 A매치에서 48년간 진 적이 없던 터. 맥팩이 됐는지 스페인은 그해 정상 자리에서 올랐다. 그러나 이 타키타카 축구도 바로 다음 대회인 2014 브라질에서 종말을 고했다. 조별리그 초장부터 네덜란드에 대패한 것. 또 칠레한테까지 잡혀 밀릴 판 짜야 했다. 오렌지군단의 복수극은 완벽했다. 2010년 결승에서 스페인에 눌린 설움을 4년 뒤 골폭풍으로 달랬다. 선취골을 내주고도 내리 다섯 골이나 뽑아냈다. 당시 네덜란드는 파죽지세였고 4강까지 내달려 아르헨티나와 마주했다. 하지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고 판페르시-로번-스네이더의 화려했던 시절도 저물어 갔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우승컵은 4개국만이 나눠 가졌다.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다. 그 남미 2강·유럽 2강 구도를 갠 건 프랑스였다. 지단-앙리-트레제게의 삼각편대는 1998년 레볼루션 단을 역대 챔피언 반열에 올려 놨다. 음바페와 메시의 3번째 격돌 성사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는 2018 러시아 대회 16강전 때 아르헨티나에 4-3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둘은 4년 뒤 다시 만났고 메시가 설욕했다. 21세기 들어 2회 이상 우승한 나라는 아직 없다. 올해 대회에서 나올 공산은 꽤 크다. 브라질(2002년 1위), 스페인(2010), 독일(2014), 프랑스(2018), 아르헨티나(2022) 중에 가능할 것이라 개 대체적 관측이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도 거론된다.

/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 (음 4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0년생**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72년생** 가족 화합에 노력하면 길하게 됩니다. **84년생**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49년생**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1년생**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73년생**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85년생**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 50년생** 활동 무대에 변동이 생기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62년생**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74년생** 못마땅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86년생**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할게 많습니다.
-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게 좋습니다.
-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 53년생** 잘 대처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65년생**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대하면 좋습니다. **77년생** 고생한 대가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때론 내 이익도 추구해야 합니다.
- 54년생** 주위에서 오해해도 깨끗하게 대처하세요. **66년생**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78년생** 약속은 지키는게 좋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5년생** 가족간에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산 넘어 산이니 문제가 계속됩니다. **79년생**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91년생**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 56년생** 문치면 좋고 흠어지면 어렵습니다. **68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0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리더십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 57년생** 칭찬은 많이 하고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69년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습니다. **81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이익이 많습니다. **93년생** 인연이 좋은 하루입니다.
-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 59년생** 원하는 것을 얻지만 손실도 따릅니다. **71년생** 지위에 구애받지 말고 일관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마음을 좋게 가지면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사찰 불사가 중요한 이유

사찰에서는 계절마다 달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의례가 열린다. 이런 종교적 행사와 의식을 통틀어 불사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일'이다. 불사라고 하면 법당을 짓거나 불상을 모시거나 행화를 그리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 일 외에도 천도제 같은 재를 올리거나 염불을 외우거나 연등을 다는 것도 모두 불사에 속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수행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불사라고 하는 것이다. 불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절의 공간을 만드는 일 그리고 각종 의례와 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법당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일이 공간을 만드는 불사이고 천도제, 기도, 법회, 사십구재 등이 의례나 행사로서의 불사이다. 불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불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빌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불사에 참여하는 계절에 시주하거나 의례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런 것이다. 불사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대중들이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탁해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고통에 빠진다. 그런 때 불사에 참여하면서 욕심을 털어내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다. 털어내었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사는 게 답답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곳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5		7	1	2		9
			2		6	5	
		2	8		5	1	
							5
	2		5		9		4
4							
		7	4		6	8	
	3	8		5			
2	6	7	8			9	1

4	2					8	5	7
5			2					1
3		9				4		
			7	5	6		9	
			4		8			
	4		9	3	7			
		4				3		9
6					9			5
9	5	8					7	2

1	6	9	8	2	9	7	2	
9	2	7	2	9	6	8	8	1
2	1	8	9	8	7	2	6	9
8	2	6	2	9	1	9	8	7
8	7	2	6	1	9	8	2	9
9	9	8	7	6	2	1	2	8
2	8	1	9	7	8	2	9	6
2	9	9	8	2	8	6	1	2
6	8	2	1	2	9	7	9	8

2	2	1	8	7	9	8	9	6
9	7	2	6	8	1	2	8	9
6	8	8	2	1	9	7	9	2
8	9	9	2	6	1	9	2	2
8	2	9	8	2	7	9	6	1
7	6	2	9	9	2	8	1	8
9	1	7	9	2	8	6	2	8
1	8	6	7	9	2	2	8	9
2	9	8	1	6	8	9	2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